보해, 사드 뚫고 15억 중국시장 진출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 '알리바바' 입점…제품 신뢰도 인증

잎새주 등 15만병 1차 수출…하남성엔 제품 전시장 개장

임지선 대표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최근 사드 여파로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철수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출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전망이다.

보해양조는 지난 21일 잎새주와 복받은 부라더 등 15만 병(약 10만 달러)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는 1차 수출물량으로, 지난 5월 알리바바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0여개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부라더 소다와 보해 복분자, 매취순 등 보해 대표제품들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저성장 시대에 국내 주류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자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찾고자 주력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는 해외사업부서를 강화해 기존에 수출하던 일본 시장 이외에 중국과 베트남, 미국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지 업체들과 협의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얻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중국 현지 파트너인 JHE GLOBAL과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인 알리바바 입점을 준비했다.

보해양조는 JHE GLOBAL과 협업을 통해 이뤄낸 알리바바 입점이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HE GLOBAL은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는 중국업체로 지난 2015년에도 담양한과를 알리바바에 입점시켰다.

잎새주 복받은부라더

보해양조는 이번 알리바바 입점을 통한 중국 수출이 단순한 해외진출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알리바바 입점 자체가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리바바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검증 덕분이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은 엄격한 선별작업을 거쳐 믿을 수 있는 제품만을 판매하는 알리바바를 신뢰하고 있다. 이러한 발판으로 알리바바는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로 거듭났다.

따라서 보해양조는 알리바바가 검증한 제품을 바탕으로 15억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출 선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중국 유통망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말까지 인구 1억 2000명의 하남성에 보해양조 제품 전시장을 개장한다. 이곳에서 주류도매상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보해양조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는 "보해양조가 미래 먹거리를 다각화 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알리바바 입점은 해외 진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현재 중국 이외 국가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는만큼 앞으로 보해가 가진 우수한 제품을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10억 지역 농수산식품도 中 수출길

광주·전남벤처기업청 수출 지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벽을 뚫고 중국에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식품 950만 달러(107억9000만원) 어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사드로 막힌 중국 수출 길을 열기 위해 지난 18~20일까지 중국 바이어초청 개별기업 방문 수출상담회를 통해 이 같은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수출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전남수출기업협동조합이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식품 분야 주관단체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다.

광주전남지방청은 컨소시엄을 구성, 시장조사·현지파견·바이어초청상담회 등 3단계 수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20개 업체에서 생산한 전복, 조미김 등 40여 품목을 수출키로 계약을 성사했다.

특히 상담회를 통해 신안우럭(백년초 건우럭)과·참살이(꿀유자차) 등 17개 업체는 수출계약 950만 달러, 협약(MOU) 체결 480만 달러 등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오는10월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중국 아시아 국제식품·음료박람회와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홍콩푸드페스티벌'에 참가해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장은 "사드 등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지역 농수산식품업체가 값진 성과를 일궈 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 길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지난 18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열린 중국 바이어 초청 우호의 밤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광주 수출액 전년비 50% ⬆

광주·전남 8월 9억780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

광주·전남의 지난 8월 수출입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주동필)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39억1000만 달러에 수입은 22.9% 증가한 2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광주가 6억4900만 달러, 전남은 3억2900만 달러로 광주·전남지역은 총 9억78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은 자동차, 반도체, 건전지, 축전지 수출은 증가한 반면 냉장고, 고무제품, 가정용 회전기기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자동차는 북미를 포함 대부분 지역의 수출 호조세와 지난해 파업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했다. 수출액수는 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9.7% 증가했다.

전남지역은 석유제품, 합성수지, 기타 석유화학제품, 합성고무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선박해양구조물·부품, 철강판, 기초유분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난달 21.9%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 선박해양구조물과 부품은 선박 인도분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16.1%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로또복권 (제77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8	12	19	21	31	35	4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09,403,080	11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0,871,937	58
3	5개 숫자일치	1,409,061	2,094
4	4개 숫자일치	50,000	104,474
5	3개 숫자일치	5,000	1,690,404

기아차 노조 3차 소송 준비

사측 압박 통한 통상임금 권리 확보

기아자동차가 25일부로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조는 통상임금 3차 소송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나설 계획이어서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통상임금 관련 추가 개별소송 소송인 모집에 나섰다. 노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기간 적용없는 통상임금 3차 개별소송으로 사측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소송으로 못질을 해놔야 노사협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1심 승소로 조합원은 목돈의 체불임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임금으로 잔업·특근 없이도 살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면서 "3차 개별소송 진행은 강하게 사측을 압박하는 동시에 법정이자, 지연이자 확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최고장의 한계, 대표소송의 한계, 조합원 개인별 체불임금 청구 시효 기간을 이유로 3차 소송을 개별소송으로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장은 회사에게 시간만 벌어준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노조측은 "최고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최고장 발송 후 6개월 기간 내에 1차 개별소송 판결 결과를 동일 적용해주면 되지만 회사는 현재 1심 판결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고장은 회사에게 6개월간 숨통만 열어주어 6개월 후에 소송하면 지연손해금 15% 기간만 지연시켜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노조는 "1차 개별소송, 2차 대표소송을 진행한 결과 개별소송만이 가장 정확하게 통상임금 관련 법률상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임을 확인했다"면서 "대의원대회에서 3차 소송은 개별소송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소송 이후 통상임금 청구 기간은 2014년 11월~2017년 10월까지다. 법적으로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차 소송은 2017년 11월 25일' 이전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방침 대로 잔업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 근로자 1인당 임금 감소 규모는 연간 100만원대로 추정된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거의 없어지는 특근 수당 감소분을 더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감수해야 할 임금 손실은 연 200만원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잔업 중단 조치로 기아차는 잔업을 통한 연간 4만1000대의 차량 생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아차의 국내 생산량(132만대)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추석자금 16조원 푼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70억원…영세상인 1인당 1000만원

추석 연휴를 맞아 국책금융기관이 16조원의 기업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의 소액대출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상 최장인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원, 산업은행은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대출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또 2조원의 결제자금을 대출하면서 금리를 최고 0.3%포인트(p) 낮춰 적용한다. 여기에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 1조원도 추가된다.

이같은 신규자금 4조2000억원과 별도로 기업은행은 6조원,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쓰일 융자에 대해 신규 보증 1조3000억원, 만기 연장 3조3000억원 등 4조6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하기 곤란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을 통해 소액대출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세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4.5% 이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상환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소액대출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상인 1인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연휴 중 대출이 만기가 된다면 연휴 시작 전(9월 29일)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금융회사 점포는 문을 닫지만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만기일에 정상 상환해도 된다. 만기를 지나면 자동 연장돼 연휴가 끝난 10월 10일 연체이자 없이 상환하면 된다. /연합뉴스